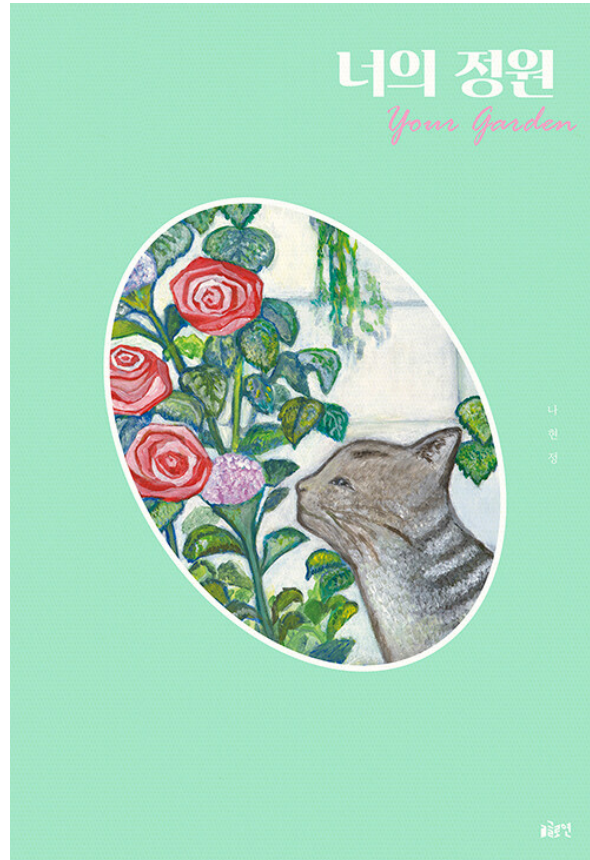


너의 정원

나현정 글·그림



주제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권장 차시	10 차시
대상 학년	5~6 학년
관련 주제어	관계, 친구, 감정, 반려동물, 교감, 정원, 휴식처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 국 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6 국 05-02]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6 국 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 국 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작성	창원 진해신항초 정지현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높은 담벼락 위에 앉아 아름다운 정원을 내려다보는 고양이의 시점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매일 혼자서 뭘 하는 걸까? 내가 여기 있는지 알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고양이에게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다가옵니다. 다리에 깃스를 한 화가의 눈에는 철조망에 폐인 고양이의 다리가 보였거든요. 화가가 고양이의 다리를 치료해주며 서로에게 3 인칭의 존재였던 그들은 ‘너’와 ‘나’의 관계에 이릅니다.

둘은 꽃의 아름다움을 교감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화가는 자신의 공간에 고양이를 초대해 친밀한 시간을 보냅니다. 나란히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어느 날 이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고양이가 자신의 짝을 찾아 불쑥 떠나버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별에 화가는 슬픔에 빠지지만, 고양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정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웠던 고양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 학습 목표

-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다.
- 작품 속 이야기와 인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공감하며 대화해야 하는 까닭과 방법을 알 수 있다.
-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을 감상할 수 있다.
- 이야기의 여러 상황에 나오는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너의 정원’이 될 만한 장소(사물, 사람 등)와 그 이유를 소개할 수 있다.
- 고양이와 화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 주변에서 나와 마음이 통하는 소울 메이트를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통해 공감과 소통, 관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 수업 준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속에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무수한 관계 속에서도 누구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다. 외로움이 물밀 듯이 밀려와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한데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는 마치 내 몸이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 듯하다. 그럴 때 문득, 귀에 들리는 음악, 책속 문장, 어느 장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툭’ 내 가슴 속에 돌을 던져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곤 한다. 그림책 『너의 정원』을 읽고 화가와 고양이의 관계, 그 관계성의 변화,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외로움, 걱정, 기쁨, 이별, 행복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가 가진 감정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 그림책 속 장면에서 화가와 고양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말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도 어루만지게 될 것이다. 질문지를 활용해 타인과 나와 공통적인 부분도 찾아보고 짝과 함께 함께 누릴 수 있는 ‘너의 정원’을 찾아보는 활동을 유도해보자. 위로가 되는 공간에서 휴식도 갖고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업 준비물

붙임종이, 활동지, 휴대전화, 사인펜 또는 색연필, 색지, 가위, 풀 등 꾸미기 재료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p>내가 좋아하는 장소 이야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곳 이야기하기 - 책표지 살펴보며 어떤 이야기일지 내용 상상하기 	1 차시
읽는 중	<p>그림책 내용 파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이와 화가의 공통점 알아보기 - 고양이와 화가의 관계 변화 살펴보기 - 그림책에 나오는 다양한 감정 찾아보기 	1 차시
	<p>공감대 형성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이나 화가의 마음에 공감하기 - 비슷한 경험 말하기 - 소울 메이트 찾기 	3 차시
읽은 후	<p>너의 정원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의 정원'이 될 만한 장소 찾기 - '너의 정원'이 될 장소를 그리거나 사진으로 찍기 - '너의 정원'이 될 만한 이유 정리하기 	2 차시
	<p>너의 정원 함께 누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의 정원' 홍보물 만들기 - '너의 정원'에서 함께 시간 보내기 - 함께한 소감 나누기 	3 차시

읽기 전

1. 내가 좋아하는 장소 이야기하기

■ 가면 기분 좋아지는 장소 말하기

- 내가 좋아하는 장소, 가면 즐겁거나 마음이 편한 장소가 있나요?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예: 공원, PC방, 내 방, 놀이터, 도서관 등

- 그 장소에 어떤 때 가나요?

예: 심심할 때/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슬플 때/ 짜증날 때 등

- 그 장소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나요?

예: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임에 몰두 할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해 진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길고양이들과 놀 수 있다. 등

■ 책 표지 살펴보며 책 내용 상상하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너의 정원』입니다.

- 표지에 무엇이 보이나요?

예: 고양이요./ 꽃(장미꽃)이요.

- 표지의 바탕색은 무엇인가요?

예: 초록색이요.

-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정원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반려묘 이야기일 것 같아요.

- 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

- 이 책은 나현정 작가가 글과 그림을 모두 맡은 작품으로, 출판사 글로연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읽는 중

1.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앞면지 살펴보기

- 면지를 살펴봅시다. 주로 무슨 색인가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 연한 초록색/ 흰색도 보여요./ 눈이 편안해요./ 바람이 부는 것도 같아요./ 잔잔한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자꾸 보고 있으니 어딘지 모르게 슬퍼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등

■ 그림책 함께 읽기

- 누가 나오나요?

예: 고양이, 여자(화가)

- 이 그림책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요?

예: 고양이, 화가

- 고양이한테 다가가는 화가(여자)의 몸 상태는 어떤 것 같나요?

예: 목발을 짚었다./ 다리를 다쳤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등

- 고양이는 다가오는 화가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날카롭게 굴었다./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빨을 드러내며 하악~거렸다.

- 고양이 앞발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가요?
예: 철조망 가시가 둘러져 있다./ 다쳤다.
 - 화가와 고양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예: 다리를 다쳤다./혼자다./꽃을 좋아한다.
 - 고양이가 화가의 초대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예: 화가가 고양이를 많이 그렸다./ 화가가 고양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화가가 고양이를 좋아한다.
 - 고양이가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 정원이 되어 줄 수 있을까?
 - 고양이가 흰 고양이를 만나 화가를 떠났을 때 화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슬프다./ 힘들다./ 외롭다.
 - 화가는 왜 대문을 열어두었을까요?
예: 고양이가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
 - 화가는 왜 고양이 몸에 정원을 가득 그렸을까?
예: 정원에서 함께 했던 고양이가 그리워서
 - 다시 돌아온 고양이 가족을 만난 화가는 어땠을까?
예: 반갑고 행복했을 것이다.
 - 그림책 속 화가와 고양이가 느끼는 감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 외로움, 기쁨, 행복함, 슬픔, 상실감, 기다림, 그리움, 반가움 등
 - 화가와 고양이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예: 처음엔 서로를 잘 몰랐으나 친구가 되었다./ 친해졌다./ 화가와 고양이는 낯선 사이였지만 서로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고양이 가족이 화가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니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 같다.
- **앞표지와 뒤표지 살펴보기**
-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봅시다. 어떤가요?
예: 타원형이 테칼코마니 같아요./ 꽃을 사이에 두고 화가와 고양이가 마주 보고 있어요./ 화가와 고양이가 꽃내음을 맡으면서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2. 공감대 형성하기

- **고양이나 화가의 마음에 공감하기**
- 그림책 속 장면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화가나 고양이 마음에 공감되는 장면 찾기
 - 찾은 장면 크게 출력하여 칠판에 붙이기
 - 공감되는 장면에 내 마음이나 떠오르는 생각을 붙임종이에 써서 붙이기
예: 자연,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 놀 수 있는 곳, 자유로운 곳 등

	
<p>경계하는 고양이/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고양이의 마음에 공감하는 글 써서 붙이기</p>	<p>나와 너/ 화가와 고양이의 변화된 관계를 보고해주고 싶은 말 써서 붙이기</p>
	
<p>고양이와의 이별/ 상실의 아픔을 겪는 화가를 위로하는 글 써서 붙이기</p>	<p>재회/ 다시 만난 고양이와 화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써서 붙이기</p>

Tip. 그림책 속에서 공감되는 장면을 찾을 때, 개인별로 그림책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책에 바로 붙임종이를 붙이면서 활동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본을 활용하여 모둠별 활동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1 권의 책으로 진행된다면 교사가 아이들이 뽑은 장면을 예상하여 스캔본으로 출력하여 칠판에 크게 제시하여 두고 학급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또는, 학습지 형태로 두 칸짜리 칸을 만들어 왼쪽에는 그림책 속의 장면, 오른쪽에는 공감되는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써넣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공감되는 장면을 개인별로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붙임종이의 색깔이나 모양을 다양하게 준비해 두면 장면에 어울리는 색이나 모양을 골라 쓰는 재미도 함께 얻을 수 있다.

■ 책속 경험과 비슷한 나의 경험 말하기

- 4인 1모듬으로 구성한다.
- 활동지를 1장씩 나눈다.
- 그림책 속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활동지에 간단히 기록한다.(언제, 누구와, 어떤 일, 그때의 기분 등을 위주로)
- 정리가 되면 돌아가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한다.

Tip. 활동지 참조. 무턱대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입을 다물거나 ‘그런 적이 없다.’ 라고 한다. 활동지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림책 속 장면을 관련지어 질문을 만들어 제시하면 떠올릴 경험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그리고 발표에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간단하게 기록함으로써 말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작은 내용이라도 발표할 수 있다. 활동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내용은 교사가 얼마든지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소울 메이트 찾기(15 문 15 답 질문지)

- 남학생 팀과 여학생 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 의자를 둥글게 배치하여 원으로 둘러앉는다.
- 질문지를 활용하여 서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 친구들의 답변을 들으며 나와 마음이 통하는(답변이 비슷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친구의 이름을 찾아 적는다.
- 상대방과 나의 특징이나 나와 공통점을 찾는다.

Tip. 질문지 참조. 고학년이면 같은 성별끼리 활동하려고 하는 특성을 적극 활용한다. 학급 인원수가 많으면 남학생 2 팀, 여학생 2 팀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해도 된다. 동그랗게 모여 앉아 서로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고 나와 공통점도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나와 공통점이 있는 친구의 이름을 기록해 두면 읽은 후 활동 ‘너의 정원 찾기’ 활동에서 짝이나 팀을 엮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

읽은 후

1. 너의 정원 찾기

- ‘너의 정원’이 될 만한 장소(사물, 사람 등) 찾기(짝활동)
 - 내 주변에서 화가나 고양이와 같은 존재 찾기 활동에서 나와 공통점을 가진 친구랑 짝을 맺는다.
 - 짝과 함께 우리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는다.
 - 학교 안의 공간, 학교 밖의 공간, 교실 안의 어느 한 모퉁이, 운동장 벤치, 놀이터, 아파트 공원 등 짝과 내가 좋아하거나 편안해 할 만한 공간을 찾는다. 단, 탈 것을 이용하여 움직여야만 하는 거리는 제외한다.
- ‘너의 정원’이 될 만한 장소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으로 찍기
 -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너의 정원’이 될 만한 장소를 찍는다.
- ‘너의 정원’이 될 만한 이유 정리하기
 - 정해진 ‘너의 정원’이 내가 떠올린 존재에게 어떤 위로를 전할지 좋은 점을 메모해 둔다.

Tip. ‘너의 정원’이 될 만한 장소는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우선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장소를 선정해야 함을 이해시킨다. 상대방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곳, 아울러 나도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그 장소의 좋은 점을 간단하게 메모하여 후속 활동인 홍보물 만들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예: 너의 정원이 될 만한 이유


1	햇볕이 잘 들어서 따뜻하다.
2	우리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데 이 곳은 조용하다.
3	나무, 하늘이 보여서 멍 때리기에 좋다.
4	아무 말 안하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을 것 같다.
5	00 이와 함께 음악을 듣고 싶다.

2. 너의 정원 함께 누리기

- ‘너의 정원’ 홍보물 꾸미기
 - ‘너의 정원’ 장소 사진, 메모(너의 정원이 될 만한 이유)를 이용하여 홍보물을 만들어 봅시다.

예:

너의 정원으로 초대!		
학교 풀빙고장		
<p>가슴이 답답할 때, 스물스물 짜증이 올라올 때, 기분이 우울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p>		<p>푸른 하늘, 둥실 떠가는 구름, 싱싱한 초록과 꽃향기 가득한 이곳, 조용하고 한가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p>
이 장소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p>방문 가능 시간: 매일 오전 8시 40분~ 오후 4시 40분 이동 방법 및 소요 시간: 교실에서 걸어서 5분이내 할 수 있는 일: 주변 산책하기, 아이들이 노는 것 바라보기, 계단에 앉아서 햇볕 쬐기, 여러 가지 놀이하기, 친구와 수다 떨기 등</p>		

너의 정원으로 초대!	
<p>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곳 00공원</p>  <p style="text-align: center;">조용히 앉아 멍때릴 수 있는 여기, 너의 정원!</p>	<p>To : oo oo 아, 안녕? 우리가 요즘 ‘너의 정원’이란 책을 읽고 있잖아. 화가와 고양이를 보면서 왠지 나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너를 떠올리게 돼. 조용하고 차분하게 네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너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너를 초대하고 싶어. 너와 함께 그곳에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을 나누고 싶어. 함께 가지 않을까? From: ☆☆</p>
<p>초대일시: 2022년 00월 00일 오후 2:10~2:40 출발 장소 및 시각: 00아파트 정문 앞 오후 2:00</p>	

■ ‘너의 정원’ 함께 누리기

- 짝과 함께 ‘너의 정원’에 가기
- 짝과 함께 ‘너의 정원’에서 시간 보내기

Tip. ‘너의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침 활동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해도 괜찮다. 그 장소에서 머무는 동안 짝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보도록 한다. 짝과 나의 공통 관심사(음악 듣기, 이야기 나누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 공통의 취미)가 되어도 좋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을 관찰한 내용이라든지 생각나는 무엇이든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다. 다만, 무의미하게 의무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안 됨을 인지시킨다.

■ ‘너의 정원’ 함께한 소감 나누기

- ‘너의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 본 소감 말하기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느 날 아침 이진희 (글·그림)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있었다. 그 아름답던 뿔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면? 당연한 자연의 섭리에 빚대어 작가는 오차 없이 찾아올 긍정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올 것이 오는 것임에도 우리가 노력해야 함을 뿔을 찾아 나서는 사슴을 통해 보여준다. 만나는 친구들 또한 자신이 경험한 상실의 순간을 기억하며 사슴에게 힘이 되어 준다. 그러자 사슴은 반쪽을 잃어버린 달을 위로하며 주변의 아픔을 보듬어나갈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나 남은 뿔마저 떨어지는 순간에도 사슴은 슬픔을 보이지 않는다. 텅텅하게 떨어진 뿔을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사슴은 이미 집을 떠날 때와는 다른 사슴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다시 솟아나고 있는 두 개의 뿔은 앞으로 더 아름답고 단단한 사슴이 될 것임을 말해준다.

#상실 #성장 #노력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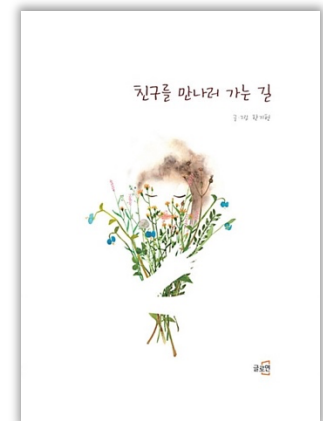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한기현 (글·그림)

“돼지가 꼬끼오~ 얼룩말이 어흥!”이라고 노래 부르며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아이에게 이파리 요정은 잘난 척하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빨간 꽃이 피어나는 요술 드레스를 권합니다. 요술 드레스를 입은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짓말을 하니, 진짜로 꽃이 풍풍 피어나고 또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많아진 꽃의 수만큼 가시가 생기고 자라나자 친구들은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모두 떠나버리고 맙니다. 슬픔에 빠진 아이에게 요정은 친구들을 칭찬하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드레스를 다시 건넵니다. 아이는 달콤한 거짓말로 친구들을 칭찬하며 자신에게로 다가오게끔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꽃을 너무 많이 피우고 말았습니다. 꽃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지독해진 향기로 냄새가 역겨워 친구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아이는 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요정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요술 드레스를 줍니다. 새 요술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 아이는 그 속마음들을 부풀리고 왜곡 하여 이쪽저쪽으로 마구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친구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이가 멀어져 모두가 자신처럼 혼자가 되어버리자, 아이는 마냥 통쾌해 합니다. 하지만 드레스의 넝쿨들이 점점 더 자라나 아이는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고 말지요. 한참의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보낸 아이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은 가시가 많은 빨간 꽃도, 향기로운 꽃들도 아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관계 #친구 #친구를 사귀는 올바른 방법



[읽는 중 활동: 비슷한 경험 말하기 활동지]

■ 『너의 정원』을 읽고 이야기 속의 일과 비슷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야기 속의 일	나의 경험
 <p data-bbox="371 658 579 689">혼자 외로웠던 일</p>	
 <p data-bbox="209 1097 740 1171">낯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경계했던 일 (두려웠던 일)</p>	
 <p data-bbox="252 1559 697 1590">누군가가 나를 아껴줘서 행복했던 일</p>	
 <p data-bbox="193 2036 756 2067">사랑하는 사람(반려동물)과 이별하여 슬펐던 일</p>	

[읽는 중 활동: 소울 메이트 찾기 15 문 15 답 질문지]

■ 친구들과 둘러앉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화가나 고양이처럼 서로 통하는 친구를 찾아봅시다.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순	질문	답	나와 마음이 통한 친구 이름
1	내가 좋아하는 것은?		
2	내가 싫어하는 것은?		
3	나는 새로운 것이 좋은가? 익숙한 것이 좋은가?		
4	친구를 사귄 때 내가 친구에게 다가가는 편인가? 누가 나에게 먼저 말 걸어주길 기다리는 편인가?		
5	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6	나는 어떤 때 외로움을 느끼는가?		
7	나는 외로울 때 어떻게 하는가?		
8	오랜 친구가 나를 떠난다면 내 마음은?		
9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인가? 적은 편인가?		
10	강아지와 고양이 중 내가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은?		
11	강, 산, 바다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한 곳은?		
12	나의 요즘 관심사는?		
13	내가 가장 잘 하는 일은?		
14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은? (신체 부위, 잘 못하는 일 등)		
15	내가 바라는 친구는? (성격, 취미 등)		

Tip. 질문은 변형하여 사용 가능하며, 『너의 정원』의 내용과 관련지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효한 질문을 새롭게 만들어 쓸 수도 있다.